자갈 하나에 한 글자…日, 자갈사경 출토

와카야마현 묘지 공사 중 발견돼
석관 속 자갈석경으로 매립된 것
1752년 조성 '법화경' 사경 추정
문화 지정 추진…전시회 준비도

박영빈 객원기자



자갈 하나에 법화경을 한 글자씩 써서 만든 '자갈사경'. 사진출처=기이민보

일본 중세 불교 사경문화의 독특한 풍습인 '1자 1석경(一字一石經)'이 대거 출토됐다. '자갈사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경은 자갈 하나에 불경을 한 글자씩 써서 모으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경공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행문화다. 8월 30일, 일본 '기이민보'는 묘지 공사 중에 발견된 자갈사경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자갈사경은 일본전국에서 보이는 풍습으로 흔히 사찰이나 마을 신행단체의 발원으로 불사가 이뤄졌다. 완성된 사경은 탑이나 '경총(經塚)'이라는 무덤을 만들어 봉안하기에 실제 유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이번에 출토된 자갈석경은 와카야마현 카미톤타 마을의 이치노세 지구 경총에서 발견됐다. 이번 출토를 계기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카미톤타 마을 전체에만 13곳의 경총이 있음도 확인됐다.

자갈사경을 발견한 와카야마현 문화재보호 지도위원 이와바시 유키오는 "문화재 위원이자 마을 주민으로 지역 문화재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경총은 이러한 관심 덕에 재발견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경총은 이치노세 지구의 공동묘지 한쪽에 있던 것으로 봉분 없이 비석만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전했다. 묘지의 소유자가 오래된 무연고 묘지들을 정리하면서 공사를 맡은 업체가 경총의 비석을 눈치 채지 못하고 폐기했고 이후 이와바시 위원이 공사 후의 현장답사에서 비석이 사라진 것을 알 곤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이와바시 위원은 "이전 조사에서 비석 아래에 자갈석경이 있을 것이라 추측은 하고 있었다. 공사업체에게 문의한 결과 비석아래에서 석관이 하나 나왔고, 석관 안에 자갈이 가득 한 것으로 보곤 다시 매립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장소에서 다시 발굴한 자갈들에서 경문들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바시 위원은 발견된 경문은 〈법화경〉이라고 전하며 "안타깝게도 원래의 비석은 폐기되어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이 경총은 1752년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당시 일본 전국을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이 마을에서 극진한 보시를 받은 답례로 경총을 세웠다는 연기도 함께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바시 위원은 "비석과 함께 자갈사경이 함께 보존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남아있는 사경만이라도 마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지역의 문화재 있어 철거나 현황변경의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지역 문화재 위원회에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마을 문화재 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이번 발굴을 계기로 지역의 경총과 그 역사에 대한 전시회를 내년 봄에 준비하고 있다. 교육위원인 오타니 하야토는 "지역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화재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의 해외 불교 사건사고

안타까운 인명피해…절도사건 잇달아

지난주 해외불교계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시작으로 절도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동남아시아와 미국의 현지 언론들은 현지 불교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8월 29일, 캄보디아에서는 장례식을 집전하던 스님이 갑작스런 폭발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영국의 대표언론 '데일리 메일'은 현지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하여 "장례식의 모든 법요를 마치고 화장로에 점화를 한 스님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안타깝게 참변을 입은 호은 소은 스님은, 사망 당일 한 신도의 장례식을 집전했고 시신 화장을 위해 염불을 외우며 화장로에 불을 붙였다. 화장로가 점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화장로의 철문이 정면에서 기도하던 스님을 향해 날아갔다. 호은 소은 스님은 날아온 철문에 직격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현지 소식통들은 "스님은 70 평생 수천 건이 넘는 화장을 집전해 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지역의 모든 화장로는 가동이 중단됐으며 전수조사중이다.

화재사건으로 사찰과 스님 모두가 참변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 9월 3일 태국의 '파타야 메일'은 태국동부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화재로 사찰이 전소하고 거동이 불편했던 고령의



화장로 폭발사고 현장.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스님 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태국 촌부리주 시라차군에 소재한 왓 라이 클루아이 사원에서는 8월 31일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일어났다. 불길을 피한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복잡한 내부구조와 광범위한 불길로 인해 진화가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92세스님이 화마에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찰을 노린 절도사건도 있었다. 지난 9월 1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신문 '폭스29'는 뉴저지 주의 캄보디아 불교 사찰이 3개월 간 두 차례나 절도범의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다.

사찰을 관리하는 신도들은 "강도들은 사찰의 내부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과 같은 범인, 혹은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찰 측은 "지난 봄 절도사건의 경우 주지스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를 뒤쫓아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얀마, 군사 쿠데타 후 출가자 지속 탄압

쿠데타 반대발언 한 스님 구금
최소 56명…국제적 도움 호소



양곤에서 군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벌이고 있는 스님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2021년 민선으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시킨 군사정권이 지난 18개월 동안 쿠데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최소 56명의 출가자들을 구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29일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을 인용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RFA는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되는 군부의 괴롭힘과 체포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지 언론 보도와 소식통을 기반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항의한 스님들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들을 무장 저항 지지자로 낙인찍고 때로는 정식 기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억류된 스님들 중 일부가 이후 석방되긴 했으나 여전히 정확한 수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친군부 민병대원들은 영장이나 그 어떤 합법적인 절차 없이 사찰을 급습하고 존경받는 스님들을 체포했다. 저항하는 스님들에 대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재정 감사를 핑계 삼아 사찰 금고 열쇠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주민은 "군부는 스스로를 불교 보호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 반하는 스님들을 체포하고 대중들과 떨어뜨린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만달레이 지역의 승가 연합회는 "지난해 연합회 소속 사찰에서 여러 스님들이 구금됐다. 스님들 각각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올해 7월에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다. 연합회 측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에 참가했거나, 공개적으로 반대를 나타냈던 많은 스님들이 사찰을 떠나 피신하고 있다"면서 "군부는 마치 사냥하듯 스님들을 쫓고 있다. 그들이 가진 명단에 오른 스님들이 다른 사찰로 숨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에 대응하여 태국에 소재한 불교도 국제 네트워크(INEB)는 군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미얀마 출가자들에 대한 긴급 인도적 구호를 위해 국제적인 호소를 전했다. INEB측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선봉에는 불교 출가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표면적으로 군부는 불교출가자들에 대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실제론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모금에 나섰다.

INEB측은 "현재 최소 20명의 스님들에 대한 식량, 의료 등의 필수적인 생존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 체포된 스님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수감된 스님들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여성출가자에 대한 체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 1천명의 출가자들에 대해 군부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비구니, 수도 개선 위한 모금 성공

돌마링 사원 시설 개선 돌입
인근 사원 차량 구입 모연도



돌마 링 비구니 사원의 비구니 스님들. 사진출처=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가 후원하는 돌마 링 비구니 사원이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 개선사업을 위한 목표금액을 성공적으로 모연했다. 지난 9월 2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의 보도를 인용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인도 북부 다람살라 인근 캉그라 지구에 있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는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돌마 링 비구니 사원과 불교 연구소의 수도 개선사업 모금이 목표액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TNP 관계자는 "모금액은 전액 사원과 불교 연구소 수도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사원에 기거하는 4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과 강사진, 유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티베트 여성협회와 티베트망명정부 종교문화부의 후원으로 설립된 TNP는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티베트 난민 출신 비구니들에게 교육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TNP는 이어 다람살라 인근 슉셉 비구니 사원의 차량 구매사업 모금을 진행 할 예정이다. TNP관계자는 "현재 다목적 차량 구입 목표 모금액은 29,500달러(한화 4,000만원)"라며 뜻이 있는 세계의 불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